

‘당권의 링’ 오를 선수 안보이고 ‘경선의 룰’ 물밑 신경전만 치열

새정치 내년 2월 전대...당권 레이스 분위기 썰렁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2월8일을 전당대회 D-데일로 결정하면서 당권 레이스의 맛을 올렸지만, 좀처럼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당권의 링’에 오를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개입의 룰’을 둘러싸고 물 밑 신경전만 고조되면서 흥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잠재적 당권 주자와 최고위원 주자들은 각기 10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여는 누구도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당을 위기에서 건져내고 차기 총선 승리와 정권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 비전과 노선 경쟁 등이 실종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썰렁한 상황이

다.

이는 전대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데다 경선 룰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당내 역학 구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선불리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는 오히려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는 계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친 노무현) 진영의 잠재적 당권 주자인 문재인 의원과 맞서는 비주류 진영의 대표 선수가 정리되지 않아 흥행을 이끌 ‘빅-매치’의 구도가 보이지 않은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중앙당 전준위(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경선 방법을 가닥 지을 다음 달 초순부터 개입의 룰을 놓고 난타전이 벌어지고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달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친노 진영의 수장인 문재인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와 비주류·중도 진영이 결집을 통해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느냐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를 반영하듯, 문 의원은 당권 도전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중도·비주류 진영에서는 ‘문재인 불가론’ 확산에 나서면서 대항마 찾기에 분주한 상황이다.

실제로 김부겸 전 의원, 안철수 전 대표, 박영선 전 원내대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당사자들은 손사래를 치거나 아직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박지원 의원이 중도·비주류 진영의 대표 선수로 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현실적으로 호남과 구 민주계,

중도, 범진보 일부를 흡수할 수 있는 주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권 창출을 이뤄냈던 박 의원의 정치적 경륜을 바탕으로 ‘역할론’을 제시한다면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한길 전 대표 등 비주류 일과 86(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그룹, 수도권 일부 의원들이 반감을 보이고 있어 현실화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당내에서는 ‘전대 위기관’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의원이 당권 도전을 선언하고 비노가 강력 반발하면서 전대가 차기 집권을 위한 비전과 혁신 경쟁이 아닌 차기 공천권 확보를 위한 ‘계파간의 전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당 혁신위에서 현역 의원의 특정 캠프 참여 금지 등 계파 활동 금지 방안을 마련하긴 했지만, 현실을 감안하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위기에 빠진 당의 현실에도 전대를 놓고 계파적 이해관계와 정치공학적 논리란 난무한 상황”이라며 “전대가 총선 승리와 정권 창출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예산심사기한 D-10...여야 물밑 신경전 치열 새누리 “기한 준수 예외없다” 새정치 “날치기엔 국민 저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 시한이 1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물밑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 부의제도 시행 원년을 맞아 기한 준수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겠다는 여당과 예산안을 고리로 최대한 정치적 성과물을 얻어내야 하는 야당이 팽팽히 맞선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19일 “심사 기한의 예외 없는 준수”를 공식 방침으로 천명하며 야당을 압박했지만, 새정치연합은 ‘날치기’라는 용어까지 동원해 여당을 미리 견제하고 나섰다. 야당은 또 예산 심의 시한 연장까지 고려하는 분위기가.

새누리당은 예산안 심사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처리 시한인 12월2일에 여당의 자체 수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당은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 처리 시한을 반드시 지켜 새로운 헌정사를 써 나갈 각오”

라며 “여야가 합의해 심사 기한을 늘일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반약(30일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안)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12월1일 본회의에 상정되고 다시 하루 동안 토론회하는데, 이에 대비해 우리는 30일까지 심사한 내용을 수정 동의안으로 만들어 정부 원안과 함께 상정하고 12월2일 곧바로 표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날치기 단독 처리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내부적으로 12월9일까지 예결위 심의 시한을 연장하도록 여당에 요구한다는 복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의회에서 “날치기로, 형식적인 법(선진화법)을 이유로 법안이나 예산안을 처리해서는 국민의 저항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정도로 예산심사를 방해하면 그 결과는 국정 파탄, 국민 저항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야, 협상 또 결렬

국회 교문위 파행 8일째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촉발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파행이 8일째 계속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안구백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교문위 여야 간 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누리과정 예산 편성문제 절충에 나섰으나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 합의에 실패했다.

새정치연합은 3~5세 누리과정 예산 2조15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것을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해소하자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크지만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졌다. 이제 한두 가지 남았다”면서 “계속 협상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안구백 원내수석 부대표는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내년에도 필요한) 5600억원을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 측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자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 당권도전 조경태 의원 광주 방문

“패권화된 계파주의 개혁 대상”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도전에 나서는 조경태 의원은 19일 “당내에 패권화된 계파주의가 개혁대상”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질 수 없는 선거에서 패배한 계파와 그리고 도반성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책임질 세력이 책임지지 않고 또다시 당권을 쥐게 된다면, 당이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오는 2월 전당대회는 누가 봐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모바일이나 여론조사 등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 대표는 당원의 직접 투표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원을 차별하고 대의원 비중을 높이는 것도 맞지 않고, 당원, 대의원, 국회의원 똑같이

한 표씩 투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호남 지역 국회의원이 대거 당권 도전에 나선 것과 관련해 “당원과 호남민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기득권에 안주하고 편승하지 않았는지, 민주당이 잘못 갔을 때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호남출신이 당 대표가 되어야 호남정치가 복원된다는 논리는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소리도 들린다”며 “당이 부패, 반민주로 갈 때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친노 패권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당함이야말로 호남정치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정치 11개 혁신안 확정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의 당내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 제3의 독립기구화하는 등 11개 혁신안을 확정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전당대회 등 당내 선거에서의 계파갈등을 최소화하고자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당직자의 캠프 참여나 특정 후보의 공개 지지와 지원이 금지된다.

더불어 전대 후보자와 배우자, 대리인이 개별적으로 지역위를 방문하거나 대의원을 집단으로 대면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합동연설회나 합동간담회 등 합법적

국회의원·당직자 선거 관여 금지 선거구획정위 제3 독립기구 설치

선거운동을 유도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선거구획정위를 국회가 아닌 제3의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로 ‘국회의원수당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국회에서 임명하는 모든 공직자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천을 위해 ‘국회의원명직공직자추천위원회’를 만드는 안도 함께 통과됐다.

부정부패 사건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소속 정당에서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 대상을 시·도지사,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시·도의원에서 기초단체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당 윤리위원장은 연말까지 외부 인사로 임명하기로 했고, 비례대표 후보는 당내 부문별 위원회에서 상향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확정된 야당 혁신안이 체포동의안 계류 72시간 경과 시 자동 기각과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의 개혁안에 비해 강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매일 24면...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 kwangju.co.kr

2015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대학원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지원자로서 신학관련 학과만 해당됨)

① 원서접수 : 2014. 11. 10(월) ~ 11. 21(금)

②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11.25(화) 오후 4:00~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4. 12. 1(월) ~ 12. 9(화)

②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전형일시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Ph.D.)	12.12(금) 오전 10:00~
		목회학과(D.Min.)	
	석사	신학과(Th.M.)	12.13(토) 오후 3:00~
		신학연구학과(M.A.T.)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12.12(금) 오전 10:00~
		교육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2.13(토) 오후 3:0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2.13(토) 오후 3:00~
		한국어교원학과(M.A.)	

학부

정시모집

①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12
	국제한국어교원학과	3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유아교육과	3
예능	음악학과	5
	실용음악학과	3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플레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포키타, 일렉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② 원서접수 : 2014. 12. 19(금) ~ 24(수)

③ 전형일 : 2015. 1. 6(화)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지소로 36
입학문의 ▶ 대학원 0621 805-1115 학부 0621805-1114

수시입출금 자신만만자유예탁금

매일 이자 붙는 통장!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쑥쑥!! 재테크의 필수!!

최고 연 2.6%

예금자보호 OK! 각종 수수료면제 OK! 급여통장 OK!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OK! 체크카드 할인·적립혜택 OK!
예금금리우대 적용까지 다 되는 자신만만자유예탁금!!

이자지급 : 300만원이상 금액 단계별 6단계 차등이율 적용
(30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예금자보호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수수료면제 | 수표발행수수료,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스마트뱅킹 송금수수료, sms수수료, 수수료 무료해약제도

서양새마을금고 본점 671-5000 양림지점 652-9203
주유소사립소 720-2880 월산지점 364-7557